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동승

주경중 감독

사랑과 화합의 메아리 스크린 가득…

보리울의 여름

이민용 감독

"'어머니' 통해 근원에 대한 성찰"



제작사 도산으로 촬영 중단
2개월 절생활 체험 화면속에

"불치의 병에 걸린 어머니에게 바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 어머니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 지게 됐죠.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의지하고픈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가 덥석 안기고픈 넉넉한 품 말입니다. 테크놀러지 영화가 판치는 요즘에 불교와 어머니라는 소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가장 한국적인 정서란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갈구와 근원적인 성찰을 하게 하고 정감이 흐르는 아날로그적 영상에 담아 이 사회를 따뜻하게 덥혀주고 싶었습니다."

주경중(43) 감독은 '동승'의 기획 의도를 이렇게 밝힌다. 아직 개봉전인데도 20여개 이상의 외국영화제에 초청될 정도로 호평받는 이유를 묻자 "한국 사찰 특유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아요. 영상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전통양식의 건물이나 조각, 아름다운 사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상미에 외국인들이 '원더풀'을 연발하더라구요"라고 답한다.

영화 '동승'이 기록한 것은 해외영화제 초청만이 아니다. 대형 영화가 아님에도 제작기간이 7년이상이나 걸렸다. 제작비 때문이다. 제작사가 도산해 얼마간은 마땅한 투자자를 잡지 못해 갈등을 겪기도 했다. 불교라는 소재 때문에 흥행이 안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

"7년이란 세월이 '동승'이라는 화두를 안고 참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촬영이 중단될때마다 해인사, 통도사, 선암사 등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맛본 산사생활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치악산 구룡사에서는 2개월동안 기거하며 아침예불부터 저녁예불까지 스님들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화면속에 녹아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 감독은 영화 '동승'에서 일반인들이 일단 어렵다거나 난해하다는 거부감이 안들게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우선 보는 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철저히 자연광을 사용해 화면에 등장하는 영상을 최대한 아름답게 연출했다. 또 장면 전개를 빠르게 하지 않고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려고 했다. 또 영화적인 재미를 관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스님들과 사찰에서 함께 생활하며 전해들은 '포경수술'에 얽힌 에피소드들도 과감히 삽입시켰다.

3월 전국 사찰 순회하며 시사회

"그동안 사찰에서 귀동냥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만으로도 3~4편 정도의 불교영화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고품격 불교 코메디 영화를 한 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4월 25일 전국 1백개 스크린을 통해 동시 개봉예정인 영화 '동승'은 3월 사찰 순회 시사회를 갖는다.

올해 영화관을 뜨겁게 달굴 불교 영화가 있다. 이미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동승'(4월 25일 개봉)과 축구를 통한 종교간의 화합을 담은 '보리울의 여름'(3월말 개봉)이다. 두 영화를 각각 연출한 주경중 감독과 이민용 감독은 영화계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중견으로, 불교적 소재를 스크린에 담아 대중화하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웠다.

'동승'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자승 도념의 애틋함을 그렸고 '보리울의 여름'은 보리울 마을의 우남사팀과 인근의 수류 성당팀이 힘을 합쳐 읍내 도대표 축구부 아이들에게 대항한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어머니'와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 삶에 대한 성찰, 화합과 상생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불교'에는 영화화하기 좋은 소재가 무궁무진 하다. 흥행과 대중성이 적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기 일쑤인 가운데 과감하게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를 기획·연출한 이들의 열정이 더없이 소중하다.





"스코어 '무승부'에 의미 있어요"

종교간 존중·이해 담으려 노력
함축미 담긴 대사들 '감칠맛'

"이민용 감독님, 스님이 감독인 사찰축구팀과 신부님이 감독인 성당 축구팀이 겨루면 누가 이길까요?" "3월말 개봉되는 '보리울의 영화'를 보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 몇차례 감독을 졸랐더니 대답이 너무 싱겁다.

"무승부에요" 얼핏 생각에 영화의 극적인 요소를 노린다면 역전승이 훨씬 더 재밌고 짜릿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승부'란 말 한마디에 이 영화의 주제가 담겨 있는 듯 했다.

"이 두 팀의 경쟁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지역간, 종교간의 갈등을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극복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사회가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와 화합으로 변해야 한다는게 이 영화가 던지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 감독이 영화개봉전인 3월초쯤 신부들과 스님들의 축구 시합을 주선키로 마음먹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화합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커진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자비와 평화가 공존하는 '보리울 마을'이야 말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소우주'라 봐도 됩니다. 즉 화합의 상징이지요"

이민용(46) 감독은 특히 '보리울의 여름'의 시나리오를 쓴 이만희 작가가 스님출신이기 때문인지 불교적 함축미를 지닌 대사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소개한다. 그중 재미있는 대사 일부분. 영화속에서 우남사팀과 축구시합을 하기로 한 날 비가 내려 김 신부(차인표 分)가 우남 스님(박영규 分)을 찾아가 연기할 것을 부탁하자 우남 스님의 선 법문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고(go)는 고지요"하면서 그냥 하자고 제안을 묵살한다. 한가지 더 소개한다. 예전에 자신이 부임하기 전 우남사 팀에게 참패를 했다고 들은 김 신부가 열심히 훈련시켜 다시 도전 하려고 우남 스님을 찾아가 결투(?) 신청을 하자 스님이 하는 말. "신부님, 스님들이 참선할 때 왜 눈을 반만 뜨는 '반개(半開)'를 하는지 아세요. 시선을 외부에 두지말고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 보라는 뜻이에요. 성당팀도 돌아가 반개 하면서 자신들의 실력을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이 감독은 "이번 영화를 찍는데 귀신사 주지 스님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사찰을 촬영장으로 개방시켜 주셨고 다도법, 장삼거는 법, 법구 위치 등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해주셨지요. 이런 각별한 스님의 배려 덕분에 좋은 영화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귀신사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대웅전과 전각들을 다시 지어야 한답니다. 이번 영화 출연(?)이 마지막인 셈이지요"라며 아쉬워 한다.

이 감독은 9월부터 사회정의를 저버리고 횡포를 부리는 권력자들과 맞서 싸우는 사나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스릴러 '신들의 휴일'을 제작할 계획이다.



글=김주일기자 / 사진=박재완기자